

## 권 두 언

### 한국부식학회의 더 큰 발전을 바라며

부식학회 부회장 김 면 섭

한국부식학회가 창립되어 금년이 11년되는 해이다. 그간 여러 회원들과 회장님을 위시한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만족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업이 1960년대에 그 기반을 갖추고 1970년대를 발전단계라고 한다면 1980년대 초기는 재정비 단계이고 그 이후는 고도성장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공업에서의 부식 문제는 지금 그 최고의 심각성을 들어내는 시기이며 따라서 우리도 부식문제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재정비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로 한국부식학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는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식학회 회원들이 학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는 줄 잡아 연간 부식손실액이 10조원은 되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매일 부식되어 가는 공장들을 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매일 수록 산학은 협동하여 이 문제를 좀 더 심중히 다루고 이의 해결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며 부식손실을 최소로 주리기 위한 기술개발과 습득에 최선을 다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 간 부식과 방식 강습회를 여러번 개최하여 현장의 부식 및 방식 기술자들의 기술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부식학회의 이 사업은 타 학회에서와 다른 특의점이라 하겠다. 부식 및 방식 강습회는 앞으로 매년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 내용도 현장기술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고 산학협동의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서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회지 발간사업도 잘 되어 가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 투고 논문수가 현 우리 실정에 비해 너무 적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부식문제 연구건수가 적다는데에 기인하겠다. 부식문제 전문가들의 수가 적은 것은 산업발전의 초창기적인 고도팽창에 뒤 따라야할 부수적인 문제들에 지나치게 동한시 하여 온 실정에서 온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부식문제 연구에 국가와 공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하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의 눈을 넓혀 선진국가들의 부식 및 방식의 이론과 기술을 받아드리기 위하여 국제적인 활동이 학회를 모체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선 먼저 다른나라의 학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로를 알고 서로 돕는 태세부터 갖추어 나가야 하겠다.

한국부식학회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 회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부식학회의 역할과 사업을 잘 알려 주며 우리들의 활동을 넓혀 부식학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는 적극 학회활동할 수 있도록 너 나할 것 없이 노력하여야 학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부식학회가 당면한 일들은 이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몇가지 만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반듯이 시행되어야 하며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학회란 회원 전원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믿이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많겠으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발전은 반듯이 크게 이루어 질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회원 모두가 참여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